

# “An interactional linguistic approach to investigating the interplay betwee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에 대한 토론문

---

박유정

성균관대학교

yujpark@skku.com

Kim의 발표 논문은 상호작용 언어학 및 대화 분석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언어의 사용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한국어의 이해와 분석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 및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대화분석 그리고 상호작용 언어학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구절 단위의 문법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연속체상(sequence)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비디오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멀티모달 대화 분석법 (Hall & Looney, 2019; Mondada, 2014, 2019)를 이용하여 면대면 대화 및 대화 중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컴퓨터, 칠판 등)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멀티액티비티 연구들(Goodwin, 2013; Haddington et al., 2014)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표 마지막에 이를 한국어 데이터를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앞으로 상호작용 언어학 분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Kim의 발표 논문을 토대로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0년 전부터 상호작용 언어학 및 대화분석 연구들의 성과들을 모아서 다양한 언어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 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듯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의 여러 국가들의 학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수정(repair), 말차례를 시작하는 표지들 그리고 질문과 대답 연속체 구성 (Stivers et al., 2009) 등을 연구하여 세계 다양한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일반화된 대화의 구조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 연구들에 한국어는 매우 드물게 언급되어 있어서 아쉽다. 미래에는 한국어의 상호작용 분석 연구자들도 이러한 협업의 기회들이 증가하여 결과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발표문에는 멀티모달 분석법에 대한 논의가 청문회의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청문회는 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언론 인터뷰(presidential press conferences, Heritage & Clayman, 2013)보다도 더 많은 적대적인 질문들과 대답 회피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 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수정 연속체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시선의 방향이나 몸의 움직임 (body torque), 어조와 음량, 그리고 텍스트의 사용 등도 멀티모달 대화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사한 후에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연구 결과는 문화 간 차이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문 간 협업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요즘 대두되는 인공 지능 및 4차 산업에서의 언어학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화분석 및 상호작용 언어학 연구를 통한 화용론적 발견들은 한국어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 단위 간 융합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나 살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야기했을 때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 “운동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와 같은 대답보다는 “괜찮아, 나중에 빠질 거니까”가 아닐까? 오늘 발표에서 소개한 일련의 연구들과 분석들은 이러한 점에서 미래 인공지능 연구에도 언어학적 연구 결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Goodwin, C., (2018). The cooperative transformative organization of human action and knowledge. *Journal of Pragmatics* 46, 8-23.
- Haddington, P., Keisanen, T., Mondada, L., & Nevile, M. (2014). *Multiactivity in social interaction: Beyond multitask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ll, K. H., & Looney, S. D. (Eds.) (2019). *The embodied work of teaching*. Birsoot, UK: Multilingual Matters.
- Heritage, J. & Clayman, S. (2013). The changing tenor of questioning over time: Tracking a question form across U. S. presidential news conferences 1953-2000. *Journalism practice* 7, 481-501.
- Mondada, K. (2014). The local constitution of multimodal resources for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65, 137-156.
- Mondada, L. (2019). Conventions for transcribing multimodality. Available at: [www.lorenzamondada.net/multimodal-transcription](http://www.lorenzamondada.net/multimodal-transcription) (last accessed 9 September, 2021).
- Sitvers, T., Enfield, N. J., Brown, P., Englert, C., Hayashi, M., Heinemann, T., Hoymann, G., Rossano, F., De Ruiter, J., Yoon, J., Levionson, S. (2009). Universals and cultural variation in turn-taking in convers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26), 10587-10592.